서민들 풋풋한 일상… 그림 속에서 말을 걸다

애니메이션 감독 주홍수씨 개인초대전
오늘부터 갤러리 생각상자…150점 출품
삶 스토리 기록…방문객들에 사인·소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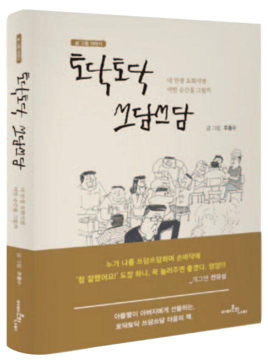
"이름이 비슷해 저한테 전화가 잘못 오곤 했는데 그 전화의 주인공이 김경일 신부님이나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등 하필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이름 한 자 빼고는 같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매스컴에서 활동을 많이 해 연예계 꽤나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별세한 개그맨 전유성씨와는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원화는 대개 서민들의 풋풋한 일상을 담은 것들이어서 갤러리를 방문해 관람을 하며 쉬어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전시를 유치하게 됐냐'는 질문에 대해 주홍 대표(갤러리 생각상자)는 이같이 답했다.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은 전남 목포 출생 애니메이션 감독 주홍수씨가 그다. 주 감독은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토닥토닥 쓰담쓰담'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주 감독의 광주에서의 첫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토닥토닥 쓰담쓰담'은 주 감독이 2021년 아마존의나비에서 출간한 단행본의 책 이름에서 차용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은 스치듯 지나친 우리 삶을 기록한 그림 에세이집으로 이해하면 된다. 출품작은 삶의 스토리가 투영된 원화 150여점.

주 작가는 미국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베트맨', '달마시안 가고일즈' 등을 비롯한 디즈니 만화는 물론이고 일본애니메이션 '나디야', KBS, MBC에 방송된 '도야지봉', '판다랑'의 원작자로,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대중적으로 익숙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왔다.

주 감독은 TV에 단골로 나오던 국민애니메이션 '옛날 옛적에'와 '은비까비', '날아라 수퍼보드' 등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우리시대 손그림 만화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1년에 한 차례식 노숙자들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에 기금 마련을 위해 작품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주 작가는 이번 광주 전시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얼굴을 그려주는 등 추억을 나누며 소통도 꾀할 생각이다. 다만 개막식은 따로 열지 않는 대신 18일 전시장에 하루 종일 머물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전유성씨와의 생전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꼭지를 포함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도 일부 출품,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그는 전유성씨에 대해 생전 책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해줬고, 추천서도 써줬다고 밝힌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그림에세이를 준비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방문객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비치할 방침이다.

작가의 광주 전시는 어머니 고향이 광주여서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지만 개인전 성격의 전시로는 뒤늦게 열리는 셈이다.

주홍 대표는 그의 스케치들을 모은 책 '토닥토닥 쓰담쓰담'에 대해 다정한 친구 같으며, 책을 펼치면 위로받고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그림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려주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책으로 본다.

여기다 그는 주 감독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하는 동시에, 그림그리는 재능으로 삶에서 만난 인연을 다룬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주 대표는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종이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주홍수 작가를 광주에 모셨다.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그림들로, 그의 그림 속 한 사람 한 사람은 관객이 보는 순간 다정한 '우리'가 된다. 그림 속에서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그가 백지에 볼펜으로 쓱쓱 그려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5분만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타난다.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다"며 "작가의 그림을 보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돼 삶의 재미와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내 미개봉 영화로 엿보는 인도인의 삶

국립亞문화전당, 29~30일 문화정보원 극장3
'굿모닝 맨하탄'·'12학년 낙제생' 등 4편 상영

만주멜 보이즈

굿모닝 맨하탄

12학년 낙제생

인도 영화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영화제가 펼쳐진다. 인도의 여러 지역 언어와 서사가 담긴 작품들로 인도 사회의 다채로운 면모를 조명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29~30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주한인도대사관·인도문화원과 함께 '2025 인도영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인도영화제는 한국 관객들에게 인도 영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국내 미개봉 인도 영화 4편을 상영하는 특별한 자리다.

상영작은 힌디어, 말라얄람어, 구자라트어 등 인도의 주요 공용어로 제작됐으며, 모든 작품에는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전국 순회 상영되는 '2025 인도영화제'의 ACC 개막작은 가우리 신데 감독의 '굿모닝 맨하탄'(29일 오후 2시)이다. 간식과 과자를 만드는 소규모 사업가 샤시가 가족에게 영어 실력 부족으로 무시를 받자 영어 학원에 등록하며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스크린에 오를 비두 비노드 초프라 감독의 '12학년 낙제생'(29일 오후 5시)과 치담바람 감독의 '만주멜 보이즈'(30일 오후 3시)는 실화가 바탕이다.

'12학년 낙제생'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청년의 도전을 다룬다. 아누라그 파탁의 동명의 논픽션 소설에 기반해 제작,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고 인도 경찰철 장교가 된 마노지 쿠마르 샤르마의 이야기다. '만주멜 보이즈'는 깊은 동굴에 추락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청년들의 우정을 그린다.

이어 아비셰크 샤 감독의 '헬라로'(30일 오전 11시)는 지역 설화가 바탕이다. 1970년대 구자라트 사막을 배경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이 금지된 전통춤 가르바를 통해 자유와 자기표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역동적인 군무와 함께 선보인다.

'2025 인도영화제'의 상영 일정 및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주 연고 '희원회' 회원들 남도서 작품 선봬

고흥 남포미술관, '확장-경계의 빛'展 내달 28일까지…회원 7명 출품

김시내 작 '아래로 향하는 마음'

전남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은 지난 5일 개막, 오는 12월 28일까지 '확장-경계의 빛'이라는 타이틀로 한 희원회 초대기획전을 열고 있다.

타이틀을 '확장-경계의 빛'이라고 한 데는 작가가 수많은 '경계'들을 뛰어넘어 세계를 '확장'해 나간 경험의 기록이 작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전시에는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작가들 각자가 창작 과정에 마주한 경계들을 넘어 더 자유롭고 더 넓게 탐구해서 표현한 세계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작가 7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작가로는 김순협, 김시내, 류화정, 박현경, 안수민, 윤명식, 이연수씨 등 7명이다.

김시내 작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일상의 촘촘한 순간과 감정을 차분한 색상과 정감 가는 형상으로 표현해 관람자들이 각기 자신의 행복한 기억 속을 여행하도록 초대하고 있으며, 안수민 작가는 '숲'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신비로움, 포용력,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섬세한 필치를 통해 독특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형상화해 관람자를 매혹시키고, 윤명식 작가는 육체적 본능과 정신적 수양이라는 양립된 세계가 공존하는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평면 및 입체로 형상화했으며 관람자를 명상과 사유로 이끈다.

이번 전시 출품작가들은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희원회'(회장 윤명식)의 회원들로, 희원회는 2018년 처음 결성 때부터 현재까지 학연과 지연 등 다른 어떠한 연결고리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작품 세계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모인 회원들이 매년 1~2회 꾸준히 전시를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10명이다.

한편, 남포미술관 관람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일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전남 혁신도시서 묻는 AI·예술의 미래

문화기관 상생포럼 오늘 arko 나주…네트워크 협력·모델 구축

AI가 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시대, 창작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일까, 아니면 기술의 또 다른 언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문화기관과 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문화재단(직무대행 전은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위원장 정병국),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아르코홀에서 'AI와 예술,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문화기관 상생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와 예술의 창작·활용·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광주·전남 지역 문화기관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전남문화재단협의회, 전남관광문화예술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의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인문교양서 '먼저 온 미래', 소설 '댓글부대'로 우리 시대의 질문을 던져온 장강명 작가가 맡는다. AI와 예술가가 맺을 관계와 예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AI시대의 예술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눈다.

이어 김성범 기획조정팀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AI시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AI 활용 가이드라인, 예술 지원체계 등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예술 현장과 정책 간의 연결점을 짚는다.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AI와 예술계의 공존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며, AI 시대에 예술가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과 윤리, 법적 쟁점 등 예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화기관 관계자와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토론자로 참여해 AI와 예술창작의 제도화·다양화 과제를 논의하고, AI와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미협 13대 지회장 선거 일정 확정

선거관리위원회 6명 구성…내달 20일 선거

광주 최대 규모 예술조직인 (사)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이하 광주미협)의 제13대 지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광주미협은 제13대 지회장 선거에 대한 공고 안내를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올해 회장 선거를 오는 12월 20일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본보 2025년 11월 14일자 16면 참조>

이를 위해 광주미협은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제13대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선관위 회의를 지난 13일 마무리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선거관리위원은 6명으로, 위원장은 리일천 수석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으로는 강동권 김상옥 김현진 최인옥 허진(진허)씨 등이 선정됐다.

이번 선거는 현 박광구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권은 광주미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부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2월 5일까지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투표권이 제한된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